

“생애주기 플랫폼으로 청년 삶 연결할 것”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 의회 비례대표 당선인 박민영입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비서실과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광역행정의 중심에서 근무하며 정책의 기획부터 예산 편성, 실행까지 함께했습니다. 특히 청년 포럼과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고민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정치가 특정한 사람들만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의 삶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으로 만들며, 결과로 증명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으로 당선됐는데요.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24살에 참여했던 촛불집회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때 정치가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와 청년 조직 활동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은 있지만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수도권으로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광역행정 현장에서 일하며 좋은 정치와 유능한 행정이 결합할 때 시민의 삶이 변화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했으며,



청년인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박민영 당선인 (청년비례)

촛불집회에서 배운 정치, 삶 바꾸는 힘 체감

이를 통해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저는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의회에 전달하고, 광주와 전남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직접 만들고 싶다는 책임감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통합특별시의 출범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했고, 그 과정에 청년의 시각과 목소리를 담고 싶습니다.

“기회 넘치는 통합특별시 만들 것”

-앞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으로 활동하며, 청년정책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청년정책의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싶습니다. 현재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여러 분야로 나뉘어 추진되는 경우가 많지만, 청년의 삶은 각각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취업 문제는 주거와 연결되고, 주거 문제는 결혼·출산, 나아가 지역 정착 문제와도 이어집니다. 때문에 청년정책은 개별 사업 중심이 아니라 청년

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설계돼야 합니다.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광주와 전남에 분산된 청년정책을 정비하고, 교육·일자리·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 청년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청년 생애주기 플랫폼’ 정책을 구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청년의 삶을 단절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청년정책은 여러 분야로 흩어져 있어 필요한 정보를 찾거나 신청하는 과정이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청년 생애주기 플랫폼은 진학, 취업, 창업, 주거, 결혼, 육아까지 청년의 삶에 맞춰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곳입니다. 정책이 흩어져 있으면 효과도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에 대한 애정이 부족해서가 아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자리와 성장 가능한 산업, 안정적인 주거 환경,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함께 있어야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을 통해 두 지역의 강점을 연결한다면 청년들

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통합특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과 의정 활동에 반영될 수 있는 참여 구조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구상하고 있는 방향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의 핵심은 지원이 아닌 참여와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 문체는 청년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공동 설계자로 세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 협의체와 정책 제안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정기적인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조례 제정과 정책 평가 과정에도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 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청년을 수혜자 아닌 정책 설계자로”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청년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말자’입니다. 저 역시 평범한 청년으로 지역에서 살아오며 미래에 대한 고민과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도 충분한 가능성과 변화를 만들어갈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더 나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저 역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의 목소리를 의회에 충실히 전달하겠습니다.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떠나지 않아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서툴 수는 있어도 바르게 가겠습니다. 청년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신승기 광주청년센터 교류협력팀



지역위원회 활동 모습.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활동 모습.

HAPPINESS COUNTRY CLUB

해피니스CC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

2026.7.6(월)~2026.8.3(월)

해피니스CC(전남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 대회일정** 예선 : 2026.7.6~2026.7.27(매주 월요일)
본선 : 2026.8.3(월) 오전 7시 티업
- 경기방식** 신페리오 방식
대중제코스(하트, 히트, 힐링)
18홀 샷전 - 남성(화이트티), 여성(레이디티)
- 참가대상** 만 20세 이상 남·여 순수 아마추어 골퍼
- 참가접수** 해피니스CC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 시 상** 출원인상(대회 최대 1억원, 복수 발생 시 비용 보장 및 시상금 1/N 지급)
본선-신페리오 우승(1명), 메달리스트(1명) 외 10명 시상
/행운권 추첨(20명, 해피니스상품권 10만원)
- 참가비** 예선 : 30,000원 / 본선 : 50,000원
(중식+출원인 보험료 포함) / 입금 확인 시 참가 확정
- 입장료** 회원 : 55,000원(카트비, 기본요금 별도)
비회원 : 115,000원(카트비, 기본요금 별도)
대회 7일 전 취소 가능하며 이후 취소는 참가비 전액 반환 불가
- 납부방법** 접수 후 참가비 입금 - 참가비계좌(광주은행 001-127-012075)
예금주: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입장료는 현장 결제
- 문의** 예약실 061)330-5001~4 경기팀 061)330-5021~2



참가신청QR

*위 내용은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경우로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피니스CC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